

# 2분기 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2분기 은행권의 가계·기업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4로 전망됐다. 1분기(-17)에 이어 마이너스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 2015년 4분기(-9)부터 11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수는 한은이 지난 1~3월까지 금융기관 여신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3개월(4~6월)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가 100과 -100사이에서 플러스(+)이면 완화, 마이너스(-)이면 강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더 많다는 얘기다.

가장 대출 문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가계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으로 1분기(-37)에 이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도 -7로 전분기(-10)와 마찬가지로 강화 추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10으로 1분기(-3)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한 신규 대출규제를 강화한 영향이다. 대기업(-3)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여파로 대출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인상기에 놓인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높아졌다. 특히 중소기업 신용위험은 43으로 전분기(23)보다 대폭 뛴 것으로 관측됐다. 자동차·조선과 관련된 협력업체의 실적이 부진한데다, 일부 지방 지역의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악재가 곳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발표

### 가계·중소기업 '대출 강화'...신용위험 높아져

곳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가계의 신용위험도 전분기 23에서 2분기 30으로 올라갔다. 대기

업도 10에서 17로 상승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가계 대출 수요는 -10를 기록, 꺾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가계일반(3)은 주택대출규제로 밀려난 주택구입자 급 수요와 전세자금 수요 등으로 소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수요는 여전히 컸다.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는 17로 전분기(17)와 마찬가지로 자금 확보를 위한 높은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비은행권의 대출태도도 상호저축은행(-25), 신용카드사(-13), 상호금융조합(-33), 생명보험사(-10) 등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오라기락 날씨, 양우산행기세요!**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2층 닥스 양산 코너에서 변덕스러운 날씨에 유용한 양우산을 선보이고 있다. 햇볕을 차단하고 오라기락한 봄 날씨에 비를 막아줄 양우산은 다양한 기능성과 패션 아이템으로 일반 양산 제품보다 찾는 고객이 많다. 특히 올해는 기존 파스텔 계열에서 벗어나 원색을 가미한 패턴의 화려한 스타일이 인기가 있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높였다.

오는 8일까지 닥스, 질스투터드, 아이엘드 등 브랜드별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동 제품은 2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 자동 제품은 3만 9천 원부터 5만 5천 원대에 판매한다.



## 필리핀 보라카이 6개월 폐쇄

“환경정비 위해”...국내 관광업계, 예약환불·여행지 변경

세계적 휴양지인 필리핀 보라카이 섬이 6개월간 문을 닫게 됐다. 국내 관광업계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필리핀 관광청은 5일 한국의 여행사들에게 “보라카이를 28일부터 6개월 간 폐쇄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 정비를 위해서”라고 통보했다.

보라카이는 지난해 각국에서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인기 지역이다. 한국인 관광객도 약 40만 명이 찾았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국내 여행사는 이번 폐쇄 기간 보라카이

여행상품을 예약한 사람 중 회차자에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거나 여행지를 변경해줄기로 했다.

하나투어 1600명, 모두투어는 900명 정도가 상품을 예약한 상태다. 앞서 폐쇄 가능성이 제기돼 예년보다는 다소 줄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관광업계는 보라카이 대체 여행지를 찾는 국내 관광객 사이에서 같은 필리핀의 휴양지 세부와 팔라완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베트남과 스테디셀러인 태국 등도 반사이익을 보리라는 전망이다.

##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확대'

2017년 2월 첫째주 이후 58주만에 하락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전환세 이어 이번주에는 그 하락세가 확대됐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기준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이번주에는 전주(-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1년2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 같은 하락전환은 지난 2017년 2월 첫째주 이후 58주만에 처음이다.

이번주에는 전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0.08%)은 상승세가 위축됐다. 반면 지방은 전주에 이어 0.07% 하락했다.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지난 2011년 3월 이후인 약 7년만에 5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침체분위기가 8개 중 전담을 제외한 7개도에서 하락세다.

주요 시도별 매매가격은 대구(0.07%), 전남(0.05%), 대전(0.06%) 등은 상승한 반면 광주에서는 보합

했다. 충북(-0.23%), 경남(-0.22%), 울산(-0.14%), 충남(-0.12%) 등은 하락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에 이어 0.09% 떨어졌다.

수도권 0.09%, 지방은 0.10%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0.08%)은 수도권 신규 입주아파트 증가 등으로 서울 전체 25개구 중 22개 구에서 보합 또는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나 산업단지 인근 등에서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과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주요 시도별 전세가격은 전남(0.04%), 대전(0.01%)은 오른 반면 대구와 광주는 보합했다. 충남(-0.32%), 울산(-0.21%), 경남(-0.20%) 등은 떨어졌다.

## 3월 수입차 판매 2만6402대...전년비 19.6% ↑

1분기, 전년비 22.6% ↑ 누적 6만7405대...벤츠 1위

3월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6% 증가했다. 1위 벤츠의 경우 국산차인 르노삼성·한국지엠보다 더 많은 내수 판매를 나타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3월 수입차 신등록대수는 지난 2월(1만9928대)보다 32.5% 증가하고, 지난해 3월보다 19.6% 증가한 2만6402대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누적대수는 6만740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8% 늘었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7932대로 1위를 나타냈고 BMW가 7052대로 바짝 추격했다.

뒤를 이어 ▲토요타 1712대 ▲랜드로버 1422대 ▲렉서스 1177대 ▲포드 1060대 ▲미니 1010대 ▲혼다 645대 ▲닛산 642대 ▲재규어 608대 ▲크라이슬러 604대 ▲볼보 515대 ▲푸조 456대 ▲폭스바겐 426대 ▲포르세 394대 ▲인피니티 210대 ▲마세라티 166대 ▲캐딜락 129대 ▲아우디 122대 ▲시트로엥 82대 ▲벤츨리 28대 ▲롤스로이스

9대 ▲람보르기니 1대 순이었다.

3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200(2736대), BMW 520d(1610대), 렉서스 ES300h(822대) 순이었다.

배기량별로는 2000cc 미만이 1만 7057대(64.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00cc~3000cc 미만 7740대(29.3%), 3000cc~4000cc 미만 1445대(5.5%), 4000cc 이상 157대(0.6%), 기타(전기차) 3대(0.0%)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유럽 2만223대(76.6%), 일본 4386대(16.6%), 미국 1793대(6.8%)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3092대(49.6%), 디젤 1만



865대(41.2%), 하이브리드 2442대(9.2%), 전기 3대(0.0%) 순이었다.

구매유형별로는 2만6402대 중 개인구매가 1만8141대로 68.7% 법인구매가 8261대로 31.3%를 각각 나타냈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5467대(30.1%), 서울 4169대(23.0%), 부산 1213(6.7%) 순이었다. 법인구매는 인천 2483대(30.1%), 부산 2037대(24.7%), 대구 1256대(15.2%) 순으로 집계됐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